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59호 (2019.6) pp. 55~84 10.21482/jbs.59..201906.55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인용된 '5지정 정형구'와 신념처

김성철
금강대학교
icchantika@ggu.ac.kr

I. 서론
II.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나타나는 5지정 정형구
III. 『오지경』과 신념처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
IV. 설일체유부 논서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
V.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문헌의 5지정 정형구
VI. 북전 문헌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의 친연관계
VII. 결론

요약문

본고는 유가행파 수행도에서 신념처의 의의를 재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에서 기초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본고는 「성문지」에 인용된 5지정 정형구를 시작으로, 그 정형구가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헌을 조사하고, 그 정형구의 형성 및 발전과 관련한 텍스트상의 문제를 망라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지정 정형구는 신념처를 통해 4정려에 드는 수행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이 정형구는 신념처 특히 입출식념을 통해 4정려에 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정형구는 한편으로는 5지정 정형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법락

주 정형구로 각각 별도의 경로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전 문헌의 5지정 정형구의 특징은 정형구 (A)에 "가득 채우다(paripūreti)" 대신 "만족시키다(pariprīṇayati)"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체를 가득 채우는 "만족(prīti)"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해서 채택한 단어로 보인다. 우리는 그 이행의 흔적을 『결정의경』과 『근본설일체유부율』「파승사」에서 찾을 수 있다.

넷째,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보이는 정형구와 다른 북전 문헌에 나타나는 정형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초기 유가행파 문헌의 학파 소속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상대적으로는 설일체유부 문헌보다는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특히 후자와 친연성이 확인된다.

주제어
신념처, 4정려, 5지정, 경량부, 근본설일체유부, 유가행파

I. 서론

본고는 유가행파 수행도에서 신념처의 의의를 재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에서 기초작업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신념처는 4념처 중 첫 번째로서, 초기 경전에서는 그 자체로 아라한과를 획득할 수 있는 독립된 수행법으로 평가되었다. 수행 이론의 체계화가 이루어지는 아비달마 시대의 수행도, 특히 설일체유부의 수행도에서 신념처를 포함한 4념처는 4제현관을 위한 예비 과정으로 정착한다.

신념처가 수행도의 예비 과정으로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당시 출가자라면 보편적으로 신념처의 수습으로부터 수행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신념처 수습을 시작으로 선정에 드는 방식, 혹은 지혜를 개발하는 방식을 닦았다. 그 중에서도 전자, 곧 신념처를 시작으로 선정에 드는 방식에서 『유가사지론』「성문지」는 일반적인 4정려 정형구에 더해 추가된 정형구를 인용한다. 이 정형구는 선정 상태에 들어가고 그것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심신의 만족감과 행복감을 표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 정형구를 5지정(五支定,

pañcāṅgika-samādhi) 정형구라 부른다. 5지정이란 4정려에 관찰상(觀察相, pratyavekṣaṇā-nimitta)을 더한 다섯 단계의 선정 수행 과정을 일컫는 것이다.

본고는 유가행파 수행도에서 신념처의 의의를 재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에서 「성문지」에 인용된 5지정 정형구를 출발점으로 삼고, 그 정형구가 나타나는 거의 모든 문헌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텍스트상의 문제를 망라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나타나는 5지정 정형구

1. 『유가사지론』「성문지」, 「섭결택분」, 『현양성교론』의 5지정 정형구

『유가사지론』「성문지」 제3유가처와 제4유가처는 예비수행을 끝낸 수행자가 세간도와 출세간도라는 본수행을 통해 상위의 수행도에 나가는 과정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1] 이 중 세간도는 4정려와 4무색정이라는 선정 수행의 심화과정을 7종작의라는 「성문지」 고유의 방식으로 닦는 방법이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수행자가 7종작의의 첫 번째인 요상작의(lakṣaṇapratisaṃvedī-manaskāra)를 통해 하계의 거침과 상계의 미세함을 관찰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곱 번째인 가행구경과작의(prayoganiṣṭhaphala-manaskāra) 단계에서 하계의 번뇌를 끊고 상계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세간도는 욕계에서 벗어나 색계의 초정려로 진입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비상비비상처에 드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각 선정 단계에서 7종작의는 반복해서 수습된다. 그 과정에서 7종작의의 마지막인 가행구경과작의 단계에서 각 선정의 근본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중 초정려의 근본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한 후, 「성문지」는 다른 관점에서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부연한다.

---

1)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안성두 역, 『불교학리뷰』 제1호(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p.125-159.; 毛利俊英, 「『聲聞地』の止觀」, 『龍谷大學院研究紀要 人文科學』 10(京都: 龍谷大學大學院, 1989), pp.37-54. 참조.

그 중에서 원리작의와 섭락[작의]에 머무는 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A)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이 간헐적이고 미약하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신체를 만족하게 한다. 가행구경작의에 [머무는 자는 만족과 행복이] 더 풍부하고 충분히 나타나는 방식으로 [신체를] 채운다. 가행구경과작의에 머물 때, (B) [그의] 모든 신체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과 더 채워야할 곳이 없다. (C) 그는 그 때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되고, 악하고 불선한 법과 분리되며, 심구와 사찰을 동반하고,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다섯 구성요소를 가진 초정려에 도달하여 머문다.[2)]

이 설명은 만족과 행복[3)]의 증대를 중심으로 정려에 드는 과정을 묘사하는 것이다. 만족과 행복은 원리작의와 섭락작의 단계에서 나타나 신체를 만족하게 한다. 이 만족과 행복이 가행구경작의 단계에서는 더 풍부해지고 충분해져 수행자의 신체를 점점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 가행구경과작의 단계에서는 더 이상 채울 곳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단계가 바로 초정려에 도달하여 머무는 단계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4정려 정형구에 등장하는 심구(vitarka)와 사찰(vicāra)에 대한 언급 없이, 만족과 행복이라는 정서적 요소만으로 초정려에 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5지정 정형구의 특징이다.

---

2) ŚrBh[D] pp.326,17-327,6: tatra prāvivekye manaskāre vartamāno ratisaṃgrāhake ca (A) vivekajena prītisukhena kāyaṃ pariprīṇayati*, kadācit kadācit pratanukasaṃmukhībhāvayogena. prāyoganiṣṭhā-manaskārakāle spharati, kadācit kadācit ghanavipulatarasaṃmukhībhāvena. prayoganiṣṭhāphale punar manaskāre vartamānasya (B) nāsty kiñcid asphutaṃ bhavati spharaṇīyam sarvataḥ kāyād yaduta vivekajena prītisukhenā. (C) sa tasmin samaye viviktaṃ kāmaiḥ viviktaṃ pāpakair akuśalair dharmaiḥ savitarkaṃ savicāraṃ vivekajaṃ prītisukhaṃ prathamaṃ dhyānaṃ paṃcāṅgam upasampadya viharati.; ŚrBh[Sh] 445,19-22; ŚrBh_T P Wi 202a4-5;『유가사지론』卷33(『大正藏』30, 466下-467上). 밑줄로 표시한 부분에 관련한 문헌학적 문제에 대해서는 Delean, Florin, *The Chapter on Mundane Path (Laukikamārga) in the Śrāvakabhūmi*, Vol I, II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2006), p.512, n.125-126. 참조.
* pariprīṇayati: Deleanu는 pratiprīṇayati로 하고 있지만, 티베트어역 yongs su tshim par byed 에 따라 pariprīṇayati로 수정하여 읽었다. 이에 대해서는 ŚrBh[D] p.326, n.123) 참조.

3) 만족과 행복이라는 번역어 특히 전자는 이어지는「성문지」의 주석적 설명에 따랐다. 김성철,「정려의 구성요소를 둘러싼 여러 학파의 해석(1)」,『인도철학』55(서울: 인도철학회, 2019) p.68, n.48 참조.

만족과 행복이 신체를 만족하게 하고 신체를 가득 채워 초정려 및 그 이상의 선정에 든다는 서술은『유가사지론』「섭결택분」에서도 등장한다.

> [묻는다.] 거기(=미지정)에 그것(=희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어떤 경전이 있는가?
> 대답한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신 것과 같다. "여기에서 비구들이여, (A)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그 신체를 흠뻑 적시고 가득 적시며 모두 채우고 매우 만족하게 한다. (B) 그의 신체에는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과 [더] 채워야할 곳이 조금도 없다."
> 그 중에서 (A) 첫 번째 동의어[들]로는 미지[정]의 상태를 가르쳤다. (B) 이후의 동의어로는 근본[정]의 상태를 가르쳤다.[4)]

「섭결택분」의 '오식신상응지의지결택'에서는 22근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면서, 4정려와 4무색정에서 몇 가지 근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문답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인용문은 초정려의 근분정인 미지정에도 희근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성문지」와 동일한 정형구를 설하는 초기경전을 인용하고 있다. 이제부터 나타나는 완전한 형태의 이 5지정 정형구를 각각 정형구 (A) (B)라 하자.「섭결택분」은 이 중 정형구 (A) "흠뻑 적시고 모두 적시며 모두 채우고 매우 만족하게 한다"는 구절은 미지정을, 정형구 (B) "채워지지 않은 곳과 [더] 채워야할 곳이 조금도 없다"는 구절은 근본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처럼 미지정과 근본정을 나누는 기준으로 이 정형구 (A)와 (B)를 이용하는 예는『현양성교론』에도 나타난다.『현양성교론』은 8등지의 근분정과 근본

---

4) ViSg_T P Zi 95a6-b1: de na de yod pa nyid du yid ches par 'gyur ba'i lung gang yin zhe na / smras pa / bcom ldan 'das kyis 'di na dge slong dben ba las skyes pa'i dga' ba dang / bde bas lus de nyid mngon par rlan par byed / yongs su rlan par byed / yongs su khyab par byed / yongs su tshim par byed de / de'i lus la 'di lta ste / dben pa las skyes pa'i dga' ba dang bde bas ma khyab pa dang khyab par bya ba chung zad kyang med do zhes ji skad du gsungs pa ste / de la rnam grangs dang po ngag gis ni mi lcogs pa med pa'i gnas skabs bstan to // rnam grangs tha mas ni dngos gzhi'i gnas skabs bstan to //;『유가사지론』卷57(『大正藏』30, p.615上): 問 喜於彼有 何教爲證 答如世尊言 如是苾芻 離生喜樂 滋潤其身 周遍滋潤 遍流 遍悅 無有少分 不充不滿 如是名爲離生喜樂 此中初門說未至位 後門說根本位

정의 분류적 확립에 대해 「성문지」와 같은 정형구를 설하는 경전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근분정과 근본정을 확립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다.] 경전에서 설하듯이 (A) "이른바 이 몸이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에 의해 적셔지고, 완전히 적셔지고, 완전히 만족하고, 완전히 채워진다"고 한 것은 초정려의 근분[정]이다. 또 경전에서 설하듯이 (B) "이 몸의 모든 곳에서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에 의해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은 초정려의 근본[정]이다.[5)]

위 인용문은 초정려의 근분정과 근본정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여기에 인용된 경전 문장 중 근분정을 설명하는 정형구 (A)에서 마지막 두 단어의 순서는 「성문지」와 일치하고 「섭결택분」과는 반대다. 근본정을 설명하는 정형구 (B)에는 「성문지」와 「섭결택분」에 나타나는 "[더] 채워야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성문지」와 「섭결택분」의 인용문과 동일한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유가사지론』 「사마히타지」의 5지정 정형구

「성문지」와 「섭결택분」 그리고 『현양성교론』에 이르기까지 인용하고 있는 이 정형구에 대해, 『유가사지론』 「사마히타지」는 이 정형구를 포함한 경전 전체를 자세히 주석하고 있다. 「사마히타지」는 초반부에서 정려의 동의어 중 하나인 등지(等持, samādhi)의 여러 종류를 열거하면서 성오지삼마지(聖五支三摩地, ārya-pañcāṅgika-samādhi)를 언급하고, 후반부에서는 경전을 주석하는 방식으로 성오지삼마지를 설명하고 있다.[6)]

이제 이 중 초정려에 드는 과정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자.

---

5) 『현양성교론』 卷2(『大正藏』31, p.486中): 建立近分 及根本者 如經中說 所謂此身 離生喜樂之所滋潤 遍滋潤 遍適悅 遍流布者 是謂初靜慮近分 如經又說 卽此身中一切處 無有少分 離生喜樂所不遍滿者 是謂初靜慮根本.

6) SamBh[D] p.126,4 및 p.198,10ff.

다섯 [단계]로 구성된 삼매란 무엇인가?

"여기에서 비구여, 바로 (A) 이 신체를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라고 한 것은 '초정려 단계[의 만족과 행복]으로' [라는 뜻이다.] 그 중에서 만족으로 "흠뻑 적시고", 행복으로 "가득 적신다." 가행구경작의에서 "가득 채우고", 이전의 작의들에서 "매우 만족하게 한다." 그 [이전 작의들]에서도 만족과 행복이 간헐적으로 일어나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가득 차지도 않기 때문이다. (B) "그의 [신체에는] 채워지지 않는 곳과 [더] 채워야할 곳이 없다"고 한 것은 '가행구경과작의에서' [그렇다는 뜻이]다.[7]

「사마히타지」는 「성문지」와 마찬가지로 7종작의와 관련하여 이 경전을 주석하고 있다. 곧 전 6단계 특히 여섯 번째 가행구경작의에서는 만족과 행복이 신체를 가득 채우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매우 만족하게 한다고 주석한다. 이것은 「성문지」의 설명과 동일하다. 마지막 단계인 가행구경과작의는 만족과 행복이 온몸을 가득 채워 더 이상 채울 곳이 없는 단계다. 「섭결택분」과 『현양성교론』의 설명과 비교하면, 가행구경과작의 단계가 초정려의 근본정이고, 그 이전 단계가 초정려의 근분정이 될 것이다.[8]

「사마히타지」는 이어서 4정려에 대한 비유를 주석한다. 각 단계에 대한 비유는 각각 초정려가 세신사, 제2정려가 산정호수, 제3정려가 연꽃, 제4정려가 흰 천이다. 이들 네 비유는 모두 만족과 행복 등이 신체를 가득 채우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9]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선정의 단계가 아니라 개별관찰의 특징(觀察相,

---

7) SamBh[D] p.198,10-16: pañcāṅgikaḥ samādhiḥ katamaḥ? iha bhikṣur imam eva kāyaṃ vivekajena prītisukheneti prathamadhyānabhūmikena. tatra prītyābhiṣyandayati, sukhena pariṣyandayati. parispharati prayoganiṣṭhe manaskāre, pariprīṇayati pūrveṣu manaskāreṣu; teṣv api hi prītisukham antarāntarotpadyate, na tu sthiraṃ bhavati, na paripūrṇam iti. nāsya kiṃcid aparisphuṭaṃ bhavati spharaṇīyam iti prayoganiṣṭhāphale manaskāre.; 『유가사지론』 卷12(『大正藏』30, p.336中).

8) 7종작의와 관련하여 이 정형구를 인용하는 것은 『유가사지론』의 「본지분」에 속하는 「성문지」와 「사마히타지」에만 나타날 뿐 그 이후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9) SamBh[D] pp.198,17-200,13.

pratyavekṣaṇā-nimitta)을 잘 취하는 지혜다.[10] 이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전의 네 가지 선정 단계와는 이질적인 요소다. 이 단계에 대한 설명에서는 정형구 (A) (B)도 나타나지 않으며,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이미지의 비유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5지정의 앞 4단계와 마지막 단계가 원래는 독립적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마히타지」는 이 경전의 주제이자 경전의 제명이기도 한 '성오지삼매(ārya-pañcāṅgika-samādhi)'의 어의를 문답형식으로 설명한다.[11]

이 정형구를 포함한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삼매는 이질적 요소를 조합한 구성이라는 측면뿐 아니라, 정형구 자체도 기본적인 4정려 정형구에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것이다.

3. 5지정 정형구의 대조 및 분석

이제 이 정형구 자체를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자. 아래 표는 위에서 인용된 정형구 (A)에 열거된 단어를 대조한 것이다. 단어 순서는 산스크리트 전문이 인용된 「사마히타지」를 기준으로 한다.

〈표 1〉 정형구 (A) 대조

성문지	-	-	④ pariprīṇayati	③ spharati
사마히타지	① abhiṣyandayati (滋潤)	② pariṣyandayati (遍滋潤)	③ parispharati (遍充滿)	④ pariprīṇayati (遍適悅)
섭결택분	① mngon par rlan par byed (滋潤)	② yongs su rlan par byed (遍滋潤)	③ yongs su khyab par byed (遍流)	④ yongs su tshim par byed (遍悅)
현양성교론	① 滋潤	② 遍滋潤	④ 遍適悅	③ 遍流布

표에서 보듯 정형구 (A)에 등장하는 단어의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①②③에 해당하는 동사는 모두 물이 흘러들어와 가득 채운다는 이미지의 동사인데 반해 ④는 "만족하게 한다(pariprīṇayati)"는 의미의 동사로서, 앞의 세 동사와는 이질적이다. 게다가 이 동사는 비유에 사용될 때는 적절한 의미를 갖지

10) SamBh[D] pp.200,14-201,2.

11) SamBh[D] p.201,3-9.

못한다. 비유에 사용되는 비누, 산정호수, 연꽃, 흰 천 등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의 "pariprīṇayati"는 특정한 의도 아래 후대에 첨가 혹은 대체된 단어로 보인다.

다음은 정형구 (B)에서 「사마히타지」의 "na ..... aparisphuṭaṃ bhavati spharaṇīyam"라는 문장의 구성과 관련한 문제를 보자.

〈표 2〉 5지정 정형구 (B) 대조

성문지	na ... kiṃcid ... bhavati (無)	① asphuṭaṃ (不充滿/ma khyab pa)	② spharaṇīyam (無有間隙 /khyab par bya ba)
사마히타지	na ... kiṃcid ... bhavati (無有少分)	① aparisphuṭaṃ (而不充滿?/ma khyab pa)	② spharaṇīyam (khyab par bya ba)
섭결택분	med do (無有少分)	① ma khyab pa dang (不充?)	② khyab par bya ba (不滿?)
현양성교론	無有少分	所不遍滿	-

위 대조표에서 한역의 경우는 구문론상의 차이와 번역용어상의 통일성 결여로 산스크리트 원문과 정확한 대조가 어렵다. 하지만 「성문지」와 「사마히타지」는 산스크리트 원문이 현존하고, 「섭결택분」은 티베트어역이 존재하므로 이 세 본으로 일대일 대조가 가능하다.

여기서 우선 눈에 띄는 점은 두 번째 칼럼에서 「성문지」는 "asphuṭam", 「사마히타지」는 "aparisphuṭam"을 사용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pari"라는 접두사가 여기서는 큰 의미상의 차이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형태상의 차이에 그친다. 티베트어역도 양자 모두 단순히 "ma khyab pa"로 번역해 의미상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한역의 경우 「성문지」는 이 단어를 "無不充滿"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형식적으로는 뒤에 오는 "無有間隙"이 "spharaṇīyam"과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세 번째 칼럼에 사용된 "spharaṇīyam"이다. 이 단어에 대해 티베트어역은 일관되게 "khyab par bya ba"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한역의 경우 모호한 점이 눈에 띈다. 먼저 「성문지」는 이 단어를 "無有間隙"으로 번역하는데 반해, 다른 한역은 이 단어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어가 보이지 않는다. 「

사마히타지」의 "而不充滿"과 「섭결택분」의 "不充不滿"이라는 번역어 중 "不充"이 "aparisphuṭaṃ"을 "(不)滿"이 "spharaṇīyam"을 번역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현양성교론』에서는 "充"이라는 번역어가 나타나지 않아 대응관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한역을 기준으로 할 때, "無有間隙"이라는 번역어가 나타나지 않는 세 한역본의 경우는 모두 "spharaṇīyam"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전을 인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으로 초기 유가행파 문헌 네 곳에 나타나는 정형구를 살펴보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형구 (A)의 ④가 가득 채운다는 의미의 다른 세 단어와는 달리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의 "pariprīṇayati"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차이를 염두에 두면서 이 정형구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또한 정형구의 차이가 어떤 학파적 전통을 반영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I. 『오지경』과 신념처 계통의 경전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

1. 『오지경』의 5지정 정형구

「사마히타지」의 주석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이 경전은 다섯 단계의 삼매를 주제로 한 경전으로서 팔리 니카야 『오지경(*Pañcaṅgika-sutta*)』(AN III, pp.25-29)과 대응한다. 팔리 『오지경』은 다섯 단계의 성스러운 삼매(ariya-pañcaṅgika-sammāsamādhi)를 주제로 한 경전이다. 팔리 『오지경』은 4정려와 개별관찰의 특징을 가진 지혜를 비유와 함께 설하고, 이어서 6신통의 성취를 설한다. 흥미로운 점은 팔리 『오지경』과 동일한 내용을 설하는 경전이 안세고(安世高, ?-168)역 『장아함십보법경』 안에 두 번째 오법을 설하면서 번역되어 있다는 점이다.[12] 여기서 다섯 단계의 삼매는 5종정(五種定)이라고 불린다. 이 부분은

12) Kuan, Tse-fu, *Mindfulness in Early Buddhism: New approaches through psychology and textual analysis of Pāli, Chinese and Sanskrit sources* (Abingdon, New York: Routledge, 2008), p.90f. 참조. Kuan은 아카누마와 드 용의 선행연구에 따라 『장아함십보법경』을 설일체유부에 속하는 경전으로 간주한다.

번역 연대로 보아『오지경』의 가장 고층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3]『장아함십보법경』의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 도를 행하는 제자여, [그는] (A) 이 몸을 스스로 지켜 획득한(自守得, *vivekaja?) 만족과 행복으로 신행(身行, *kāya)에 ①흘려넣고(澆, *abhiṣyandati) ②적신다(漬, *pariṣyandati). (B) 온몸 어디에도 스스로 지켜 [획득한] 행복인 만족과 행복이 ①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없게 한다(無有 ... 不到, *na ... asphuṭam bhavati). ... 도를 [행하는] 제자여, 이것이 오종정 중 첫 번째 행이다.[14]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장아함십보법경』의 5종정을 설하는 부분에서는 정형구 (A)에서 열거되는 단어 중 ①과 ②만 나타난다. 정형구 (B)에서도 ①만 나타난다. 이어서『장아함십보법경』은「사마히타지」에 인용된 비유와 거의 동일한 비유를 사용하여 5종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4정려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대응하는 팔리『오지경』의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 여기에서 비구들이여, 비구는 (C)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되고 ..... 첫 번째 선정에 도달하여 머문다. 그는 바로 (A) 이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흠뻑 적시고, 가득 적시며, 가득 메우고, 가득 채운다. (B) 그의 몸에는 어떤 곳도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15]

팔리『오지경』에는 일반적인 4정려 정형구인 정형구 (C)가 명확히 나타난

---

13) *Ibid.* p.91. 참조.

14)『장아함십법보경』卷上(『大正藏』1, 234中): 行道弟子. 是身自守得喜樂. 澆漬身行. 可身一切無有一處不到喜樂. 從自守樂. ..... 道弟子. 是五種定. 是上頭行.

15) AN. III, p.25,8-12: Idha bhikkhave bhikkhu (C) vivicceva kāmehi ... pe ... paṭhamaṃ jhānaṃ upasampajja viharati. (A) So imameva kāyaṃ vivekajena pītisukhena abhisandeti parisandeti paripūreti parippharati. (B) Nāssa kiñci sabbāvato kāyassa vivekajena pītisukhena apphuṭaṃ hoti.

다. 한역『장아함십보법경』의 5종정 중 첫 네 단계를 명시적으로 4정려와 연결시킨 것이다. 또한 정형구 (A)와 정형구 (B)도 완전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정형구 (B)의 경우 한역『장아함십보법경』과 팔리『오지경』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정형구 (A)는 팔리『오지경』 쪽이 더 발전된 형태를 보여준다.

한편, 팔리『오지경』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단편의 존재도 보고되어 있다. 투르판 출토 산스크리트 단편 SHT no.990이 그것이다.[16] 이 경전이 어느 부파에서 전한 경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적어도 상좌부 계통의 경전 및 한역『장아함십보법경』이나『중아함경』 계통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분명하다.

SHT no.990은 정형구 (A)에서 "pariprīṇayati"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나, 정형구 (B)에 "spharaṇīyaṃ"이 나타나는 점,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의 비유에서 팔리『오지경』에서 사용된 "puriso"[17] 나『중아함경』「염신경」 및「염처경」에 나타나는 "一人"[18]이라는 단어 대신,「사마히타지」와 마찬가지로,[19] "gṛhapati"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은「사마히타지」와 친연성을 보여준다. 이제 이『오지경』 관련 경전들의 정형구를 표로 비교해 보자.

---

16) Deleanu, Florin, *op. cit.*, p.513, n.126 참조. SHT 3, no.990, pp.252,12-253,5.3:

V

1 bhavati spharaṇīyaṃ yaduta samādhijena | prīti .. + ///

.....

5 + + + ti pariprīṇayati pa ○ + + + ///

.....

R

.....

4 + + (ta)[d]yathā gṛhapatir vā ○ + + + ///

.....

17) AN. III, p.27,5: Seyyathā pi bhikkave puriso odātena vatthena .....

18)『중아함경』卷20(『大正藏』1, p.555下);『중아함경』卷25(『大正藏』1, p.583上): 猶有一人 被七肘衣或八肘衣

19) SamBh[D] p.200,5: gṛhapatidṛṣṭāntaḥ punaḥ kimartham?

〈표 3〉『오지경』 정형구 (A) 대조

사마히타지	① abhiṣyandayati	② pariṣyandayati	③ parispharati	④ pariprīṇayati
장아함십보법경	① 澆	② 漬	-	-
오지경	① abhisandeti	② parisandeti	④ paripūreti	③ parippharati
SHT no.990			④ pariprīṇayati	③ pa ○ + + +

이 표에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④가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인용된 경전에서는 "pariprīṇayati"인데 반해 팔리『오지경』의 경우는 "paripūreti"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도 살펴보겠지만,『장아함십보법경』과『중아함경』을 제외한 북전의 경론에서는 모두 이 "pariprīṇayati"라는 단어가 발견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한다.

마지막으로『장아함십보법경』은 신체와 관련한 개별관찰의 지혜를 설한다.

> 또한 도를 [행하는] 제자여, [그는] 신체에 대한 관찰의 진리[身觀諦]를 취하고[受, *sūdgṛhītaṃ], 깊이 집중하고[熟念, *sumanasīkṛtaṃ], 잘 선택하고[熟居, *sujuṣṭaṃ?], 깊이 꿰뚫는다[熟受, *supratividdhaṃ]. 비유하면 서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을 관찰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 도를 [행하는] 제자여, 이것이 오종정 중 다섯 번째 행이다.[20]

이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수행자가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에 대한 관찰의 진리[身觀諦]를 취한다는 구절이다. 수행자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스스로 지켜 획득한 만족과 행복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정으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만족이 없이 행복만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온몸을 가득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신체적·정신적 요소로 가득 채워진 자신의 신체를

20)『장아함십보법경』卷上(『大正藏』1, pp.234下): 亦有道弟子. 受身觀諦. 已熟念熟居熟受 譬如住人觀坐人. 坐人觀臥人. ..... 道弟子. 是五種定. 是爲第五行.; 번역은 Kuan, Tse-fu, *op. cit*. p.91. 참조.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단어는 같은 비유가 설명되는 ŚrBh[D] p.172,15-16에서 가져왔다.

다시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비록 이전 단계와는 이질적인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과 관찰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일 수 있다. 서로 이질적인 수행의 방법을 신체라는 대상의 동일성을 토대로 통합한 것이다.

2. 5지정과 신념처

5종정 곧 5지정의 마지막 단계가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관찰이라는 사실은 이 5지정과 신념처의 밀접한 관계를 환기시킨다. 5지정과 신념처의 밀접한 관계는 위 정형구를 포함한 5지정 구절이 한역『중아함경』「염신경」 및 그에 대응하는 팔리 니카야『염신행경(*Kāyagatāsatisutta*)』(MN. 119)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중아함경』「염신경」과 팔리『염신행경』은 4념처 중에서도 신념처만을 독립시켜 설하는 독특한 경전이다. 신념처를 독립적으로 설하는 경전에서 5지정을 설하는 정형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신념처와 5지정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중아함경』「염신경」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념처와 5지정을 설하고 있다.

① 네 자세와 잠들고 깬 상태에 대한 관찰
② 동작에 대한 관찰
③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끊음
④ 이를 붙이고, 혀를 입천장에 대며, 마음으로 마음을 다스림
⑤ 호흡에 대한 관찰
⑥ 4정려
⑦ 광명상
⑧ 관찰상
⑨ 32종의 신체 부위 관찰
⑩ 6계의 관찰
⑪ 아홉 단계의 시체의 부패 과정 관찰[21)]

21)『중아함경』卷20(大正藏1, p555上-556下); Kuan, Tse-fu, *op. cit*. pp.82-83. 참조.

일반적으로 ①②⑤⑨⑩⑪이 신념처의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신념처의 수습 중간에 ⑥4정려와 ⑧관찰상이라는 형태로 5지정이 설해져 있다. 4정려와 관찰상 사이에 ⑦광명상이 삽입되어 있는 점도 독특하다. 이러한 열거순서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매우 혼란스러운 느낌을 준다.[22] 이 중 특히 ①부터 ⑥까지의 과정을 보면 신념처 중 자세와 동작 그리고 호흡에 대한 관찰[23]을 통해 4정려에 드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중아함경』「염신경」에 보이는 정형구는 다음과 같다.

> 또 다음으로 비구는 신념처를 수습한다. 비구는 (A)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몸을 적시고 스며들며 가득 채운다. (B) 이 몸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24]

이 정형구에 이어 세신사를 포함한 네 가지 비유와 함께 네 단계의 선정이 설명된다. 하지만 4정려를 설하는 정형구 (C)는, 『장아함십보법경』과 마찬가지로, 나타나지 않는다. 5지정과 신념처를 함께 설하는 한역 경전은 이 외에도 『중아함』「염처경」이 있다. 『중아함』「염처경」은 4념처 전체를 설하는 설하는 경전이지만, 압도적 비중으로 신념처를 설하고 있다. 이「염처경」의 신념처 부분에도 동일한 정형구가 인용되고 있어,[25] 5지정 정형구와 신념처의 연관성

---

22) 이에 대해 Kuan, Tse-fu, *op. cit*., pp.83ff.은 한역 중아함「염신경」이 대응하는 팔리『염신행경』보다 앞서거나 혹은 더 원형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23) 주목해야 할 점은 호흡에 대한 관찰 곧 입출식념이 만족과 행복으로 신체를 가득 채운다는 5지정 정형구와 밀접히 관련된 구절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곧 입출식념의 16단계 중 세 번째 단계에서 나타나는 '온 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구절과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에 나타나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는 구절 등이다. MN. III pp.82,31-83,1: Sabbakāyapaṭisaṃvedī assasissāmī sikkhati ..... Pītipaṭisaṃvedī ..... Sukhapaṭisaṃvedī passasissaāmī sikkhati. 이것은 5지정 정형구의 형성 과정에서 입출식념의 정형구와 어떤 관련성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24)『중아함경』卷20(大正藏1, p555中): 復次 比丘修習念身 比丘者 離生喜樂 漬身潤澤 普遍充滿 於此身中 離生喜樂 無處不遍

25)『중아함경』卷24(大正藏1, pp.582下ff); Kuan, Tse-fu, *op. cit*., pp.91ff.은「염처경」의 신념처 부분은「염신경」에서 가져온 것이며, 두 경전은 모두『장아함십보법경』에서 5종정을 가져온 것임을 증

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다.

한편, 대응하는 팔리『염신행경』은 신념처의 설법 순서라는 점에서『중아함』「염처경」과 현저히 다르다. 팔리『염신행경』에서 설하는 신념처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호흡에 대한 관찰
② 자세에 대한 관찰
③ 동작에 대한 관찰
④ 32종의 신체 부위 관찰
⑤ 4계의 관찰
⑥ 아홉 단계의 시체의 부패 과정 관찰
⑦ 4정려[26)]

팔리『염신행경』에서는 신념처의 설법이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여기서 4정려는 신념처의 마지막에 나타난다. 팔리『염신행경』이 신념처를 통해 4정려를 획득하는 방식의 수행도를 설하고 있는 경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경전이 5지정 중 다섯 번째인 관찰상을 설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팔리『염신행경』의 정형구는 팔리『오지경』과 동일하다.[27)] 곧 위에서 살펴본 두 종류의 팔리 니카야에 나타나는 5지정 중 첫 네 정형구는 모두 4정려 정형구 (C)를 포함하고 정형구 (A)와 (B)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신념처 계통의 경전에서는, 적어도 텍스트상으로는, 4정려와 관찰상의 관계가 느슨하거나(『중아함경』「염신경」), 관찰상을 설하지 않는 경우(팔리『염신행경』)도 있다. 이것은 수행이론의 성립사적 관점에서는 신

명하고 있다. Kuan은 종래의 연구에 따라 이 세 경전을 모두 설일체유부에 속하는 경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한역『중아함경』의 학파 소속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난 문제는 아니다. 한역『중아함경』의 학파 소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진일,「한역 중아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잔엽들」,『인도철학』30(서울: 인도철학회, 2010), p.9ff 참조.

26) MN. III, pp,88,16-94,21.

27) MN. III, p.92,23-28.

념처 계통의 수행이론 곧 신념처를 통한 4정려 획득이라는 과정이 먼저 성립하고, 이후 관찰상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결합한 5지정 이론이 성립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28]

이제 이 신념처 계통의 경전에 인용된 정형구 (A) 구절을 대조해 보자. 대조에서 단어 나열 순서는 표 3)과 마찬가지로 사마히타지를 기준으로 한다.

〈표 4〉 신념처 계통의 5지정 정형구 (A) 대조

사마히타지	① abhiṣyandayati	② pariṣyandayati	③ parispharati	④ paripr̄iṇayati
염신경=염처경	① 漬	② 潤澤(?)	③ 普遍充滿(?)	
염신행경	① abhisandeti	② parisandeti	④ paripūreti	③ parippharati

한역의 경우 "潤澤"과 "普遍充滿"이 대응하는 산스크리트와 팔리어의 어느 단어에 해당하는가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특히 "普遍充滿"의 원 단어가 팔리본의 "paripūreti"와 대응하는 단어인지 "parippharati"와 대응하는 단어인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paripūreti(parispharati)"는 나타나지만 「사마히타지」에 나타나는 "paripr̄iṇayati"와 대응하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5지정을 설하는 경전은 물론 신념처를 설하는 경전에서도, 한역 『중아함경』과 팔리 니카야 양 계통에 속하는 경전군에서는 모두 "paripr̄iṇayati"라는 단어는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정형구 (A)와 (B) 그리고 세신사를 포함한 비유가 모두 나타나는 팔리 니카야의 다른 모든 경전[29]에

28) 반대로, Kuan, Tse-fu, *op. cit*. pp.91ff는 신념처 계통의 관찰상과, 비유를 동반한 4정려 설명을 『오지경』에서 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행 이론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Kuan의 견해에 동의하기는 힘들다. 텍스트 성립의 순서는 『오지경』이 선행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수행론의 요소와 그에 따른 정형구의 성립은 신념처 계통에 보존된 내용들이 더 오래된 관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텍스트 성립사와 개별적 이념·이론의 성립사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9) 팔리 니카야에서 정형구 (A) (B)와 세신사 등의 비유를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한 구절이 나타나는 경전은 이외에도 *Sāmaññña-phala-sutta*(DN. I, pp.73,20ff), *Mahā-assapura-sutta*(MN. I, pp.276,17ff), *Mahā-sakuludāyi-sutta*(MN. II, pp.15,3ff)가 있다. 이들 경전은 염신경 계통과는 달리 수행도 전체를 다루는 경전이다. 이들 경전에서는 5종정 정형구와 신념처의 관계가 두드러지지 않으며, 5종정 중 다섯 번째 단계인 관찰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서도 “pariprīṇayati”는 나타나지 않는다.

Ⅳ. 설일체유부 논서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

한편, 학파소속성이 확정되지 않은『중아함경』과는 달리, 설일체유부의 논서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 설일체유부 계통 경론에 사용된 정형구의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사마히타지」에서는 5지정을 주석하면서 첫 네 단계를 현법락주의 관점에서 5지정의 구성요소로 확립한다고 설명한다.[30]「사마히타지」에서 현법낙주는 4정려의 동의어로 열거되기도 하고,[31] 성오지삼마지 직전의 주제인 4삼매수(samādhi-bhāvanā) 중 첫 번째 삼매수이기도 하다.

이 4삼매수에 대해 설일체유부 최초기 논서에 속하는『법온족론』은 동일한 내용의 4삼매수를 열거하고, 그 중 첫 번째 현법락주를 위한 삼매수에 대해 5지정 정형구를 인용하고 해설하고 있다.

> [네 삼매수 중] 어떤 삼매수[修定]가 닦고 익히고 많이 행하면 현법락주를 증득하게 하는 [삼매수]인가? 이른바 “어떤 비구가 (A) 자신의 신체를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적시고 가득 적시며, 채우고 가득 채우며, 만족하게 하고 매우 만족하게 한다. 그러므로 (B) 자기 신체의 어떤 곳도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우지 못한 곳이 없다”하고 설한 것이다. 이것을 닦고 익히고 많이 행하여 현법락주를 증득하게 하는 삼매수라 한다.[32]

이 인용문의 정형구 (A)에서는 세 셋트의 동사군이 등장한다. 곧 “적시고 가

30) SamBh[D] p.201,6-7.

31) SamBh[D] p.147,4-8.

32)『법온족론』卷8(『大正藏』26, p.489中): 云何修定 若習若修 若多所作 能令證得現法樂住 謂有苾芻 卽於自身 離生喜樂 滋潤遍滋潤 充滿遍充滿 適悅遍適悅 故離生喜樂 於自身中 無有少分而不充滿 是名修定 若習若修 若多所作 能令證得現法樂住.

득 적시며, 채우고 가득 채우며, 만족하게 하고 매우 만족하게 한다"는 것이다. 「사마히타지」의 한역어와 대조해 보면, 이 세 동사군의 원어는 각각 "abhiṣyadandayati pariṣyadandayati", "spharati parispharati" "prīṇayati pariprīṇayati"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형구 (A)에서는 팔리 니카야나에 나타나는 "paripūreti"에 상당하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대신 "prīṇayati pariprīṇayati"의 번역어로 보이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형구 (B)에서는 다른 모든 계통과 마찬가지로 "spharaṇīyam"에 해당하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4정려 정형구 (C)도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법온족론』은 정형구 (A)의 세 세트 동사를 해설하면서, 5종정 계통에서 나타나는 세신사 등의 네 비유와는 달리, 농부가 전답에 물을 대는 비유를 들고 있다.[33] 이로 볼 때, 『법온족론』은 『오지경』 및 「염신경」 계통의 경전에서 직접 정형구를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구 (A)에 "適悅遍適悅"가 포함된 형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법온족론』뿐 아니라 『집이문족론』과 『대비바사론』에서도 동일하게 "適悅遍適悅"가 포함된 정형구 (A)가 나타난다.[34] 이로써 설일체유부 계통의 논서에서는 정형구 (A)에 "適悅遍適悅"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정형구 (B)에는 "spharaṇīyam"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었음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다.[35]

33) 『법온족론』 卷8(『大正藏』26, p.489下)

34) 이 세 셋트의 동사군은 『집이문족론』 卷5(『大正藏』26, p.386下)에서도 첫 세 정려에 대응하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묘사하면서 나타난다. 『대비바사론』 卷134(『大正藏』27, p.693中)에는 같은 정형구가 "充滿遍充滿"이 빠진 "滋潤遍滋潤. 適悅遍適悅"이라는 두 세트의 동사군만으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세 논서 모두 "適悅遍適悅"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35) 이 점은 『중아함경』이 설일체유부 소속이라는 Kuan의 입장과 그에 근거한 논지 전개에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V.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문헌의 5지정 정형구

1. 『결정의경』의 5지정 정형구

나아가 우리는 설일체유부 및 유가행파와는 다른 내용으로 4삼매수를 설하는 문헌에서도 이 정형구를 만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경량부 계통의 문헌이라고 지적된[36] 『결정의경(*Artha-viniścaya-sūtra*)』이다.

『결정의경』은 4삼매수를 첫째 욕탐을 끊기 위한 삼매수, 둘째 현법락주를 위한 삼매수, 셋째 지견을 획득하기 위한 삼매수, 넷째 혜를 획득하기 위한 삼매수로 열거한다. 『법온족론』과 「사마히타지」가 열거하는 4삼매수 중 네 번째 삼매수를 제외하고, 대신 첫 번째로 욕탐을 끊기 위한 삼매수를 추가한 것이다. 또한 삼매수의 구체적인 내용 설명에서도, 위에서 본 『법온족론』과 「사마히타지」와는 물론, 팔리 니카야와도 차이점이 보인다.[37] 이 중 첫 번째 삼매수에서는 신체의 장기를 부정한 것으로 관찰하는 부정관이 서술된다. 이어서 설하는 현법락주를 위한 삼매수에서는 초정려와 제2정려에 대한 설명과 제3정려에 사용된 비유가, 다음으로 지견을 획득하기 위한 삼매수에서는 광명상이, 마지막으로 혜를 획득하기 위한 삼매수로는 제4정려가 설명된다.[38] 다시 말해 『결정의경』의 4삼매수는 부정관을 중심으로 한 신념처를 통해 4정려를 획득하는 수행 과정인 것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염신경」 계통의 수행도와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5지정 정형구와 신념처의 관계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다.

이 중 두 번째 현법락주를 위한 삼매수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사용된다.

---

36) Samtani는 이 경전의 중요성을 해설하면서, Yaśomitra와 Haribhadra가 각각 이 경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제시한다. 특히 Yaśomitra가 경량부 계통의 경전으로 이 경전을 언급하는 것을 근거로 이 경전이 초기에는 경량부-비바사사 특히 경량부의 근본 경전이었다가 후대에는 대승불교에서도 중시된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대해서는 Samtani, N. H., *The Arthaviniścayasūtra and its Commentary (Nibandhana)*(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2005[1971]), pp.28-30 및 pp.63f 참조.

37) *Ibid*. p.48. 및 AVinS p.22, n.2 참조.

38) AVinS pp.22,3-28,7.

(A) 바로 이 몸을 분리로부터 발생하고 삼매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안에서 적시고 가득 메우며 매우 만족하게 하고 가득 채운다. (B) 그의 몸에는 채워지지 않은 곳과 채우지 말아야 할 곳이 없다.[39]

이 인용문은, "분리로부터 발생하고 삼매로부터 발생한"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정려와 제2정려를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어지는 비유가 5지정의 비유 중 세 번째 단계인 연꽃의 비유인 점을 고려하면[40] 제3정려까지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구절은 위에서 살펴본 정형구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우선 정형구 (A)에 열거되는 동사군이 "paripūrayati"와 "pariprīṇayati"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티베트어역에서는 그 숫자가 더 늘어나 있다. 거기에서는 "paripūrayati"에 해당하는 역어를 확정하기 어렵지만, "pariprīṇayati"의 역어인 "yong su tshim par byed"는 나타난다.[41]

한편, 정형구 (B)에서는 "aspharaṇīya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티베트어역 또한 "khyab par ma gyur pa"로서 현존 산스크리트본의 "aspharaṇīyaṃ"을 지지한다. 이는 「사마히타지」와 SHT no.990에서 볼 수 있는 "spharaṇīyaṃ"과는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아쉽게도 『결정의경』의 주석은 이 단어를 해설하지 않는다.[42] 다만, 의미상으로는 "spharaṇīyaṃ"과 "aspharaṇīyaṃ"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43]

이상과 같이 보았을 때 4삼매수 중 현법락주에 포함된 5지정 정형구는, 4정려에서 5지정으로 발전한 수행도와는 다른 경로로 이들 정형구를 받아들인 것

39) AVinS p.25,8-11: imam eva kāyam adhyātmaṃ vivekajena samādhijena prītisukhenābhiṣyandayati, paripūrayati, pariprīṇayati, parisphurati, tasya nāsti sarvataḥ kāyād asphuṭaṃ bhavaty aspharaṇīyaṃ* yaduta adhyātmajaṃ vivekajena prītisukhena.
* SamBh[D] p.514, n.126에 따라 asphuraṇīyaṃ을 aspharaṇīyaṃ으로 수정하였다.

40) AVinS p.25,11f.

41) AVinS_T, P. Mdo Shu 187a5-7: dben pa'i ting nge 'dzin las skyes pa'i dga' ba dang / bde bas rang gi lus 'di nyid mnyen par byed / yong su mnyen par byed / yongs su khyab par byed / yong su tshim par byed / kun tu rgyas par byed pa ste / 'di lta ste / dben pa'i ting nge 'dzin las skyes pa'i dga' ba dang bde bas de'i rang gi nag gis lus thams cad la ma khyab pa 'am khyab par ma gyur pa med do //

42) AVinN p.204.

43) SamBh[D] p.513, n.125 참조.

으로 보인다.

2. 『근본설일체유부율』「파승사」의 5지정 정형구

우리는 "spharaṇīyaṃ"가 아닌 "aspharaṇīyaṃ" 형태로 이들 정형구가 나타나는 다른 예로서 『근본설일체유부율』「파승사(Saṅghabhedavastu)」에 인용된 문장을 들 수 있다.

> (A) 그는 바로 이 몸을 [감각적 욕망의 대상과]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적시고 흠뻑 적시며 만족하게 하고 가득 채운다. (B) 그의 몸에는 분리로부터 발생한 만족과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은 곳과 채우지 말아야 할 곳이 없다.[44]

「파승사」에 총6회 등장하는 이 정형구에서 정형구 (B)는 "aspharaṇīyaṃ"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 이는 대응하는 티베트어역에서도 확인된다.[45] 따라서 근본설일체유부 전통에서 정형구 (B)에 부가된 단어는, 초기유가행파 문헌에 인용된 정형구와는 달리, "aspharaṇīyaṃ"였음을 확정할 수 있다.

한편, 정형구 (A)에서는 다른 북전 계통 문헌에 나타나는 정형구와는 다소 다른 형태의 단어가 나타난다. "만족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pari-Prī"의 사역형 "pariprīṇayati" 형태가 아닌 직설법 정동사 "pariprīṇāti" 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46] 이 사실은, 정형구 (B) "aspharaṇīyaṃ"의 동일성에도 불구

---

44) SBV II pp.242,24-243,1: *sa imam eva kāyaṃ viviekajena prītisukhenā*bhiṣyandayati pariṣyandayati pariprīṇāti parispharati; nāsya kiṃcit sarvataḥ kāyād asphuṭaṃ *bhavaty aspharaṇīyaṃ yaduta vivekajena prītisukhena*.; 이탤릭으로 표시한 부분은 Gnoli가 교정한 부분이다. 아래에 반복해서 총6회 등장하는 정형구는 이 교정과 일치한다(SBV II 243,5-8; 243,13-17 등).

45) SBV_T, P 'Dul ba, Ce 254b5-6: ..... dben pa las skyes pa'i dga' ba dang bde bas ma khyab pa 'am / khyab par ma gyur pa cung zad kyang med do //

46) pariprīṇāti라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채운다는 의미의 Pī/pṛṇāti와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의 Prī/prīṇāti의 형태 및 발음상의 유사성에 근거해 후자가 전자를 대체했음을 보여준다. 정형구의 원형은 정형구 (A)에 기본적으로 '적시다' 혹은 '채우다'라는 동의어가 나열되어 있는 점, 그리고 그 동사들이 비유와도 잘 어울린다는 점에서, '채우다'라는 의미의 Pī/pṛṇāti였을 것이다. 그 후, 특정 시점에 특정한 이유로 Pī/pṛṇāti 대신에 Prī/prīṇāti가 사용되었다. 그 시점은 아마도 『법온족론』과

하고,『결정의경』과는 다른 학파적 전통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VI. 북전 문헌에 나타난 5지정 정형구의 친연관계

이상 살펴 본 설일체유부 논서,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계통 문헌에 나타난 정형구 (A) (B)를, 앞서 살펴본 초기 유가행파 문헌 및 SHT no.990을 포함하여, 표로 정리해 보고 각 문헌간의 친연 관계를 살펴보자.

〈표 5〉 북전 계통의 정형구 (A) 대조

법온족론 등	① 滋潤	② 遍滋潤	③ 充滿, ③-1遍充滿	④ 適悅, ④-1遍適悅
결정의경	① abhiṣyandayati	-	④ paripūrayati /paripriṇayati	③ parisphurati
파승사	① abhiṣyandayati	② pariṣyandayati	④ pariprīṇāti	③ parispharati
SHT no.990	-	-	④ pariprīṇayati	③ pa ○ + + +
성문지	-	-	④ pariprīṇayati	③ spharati
사마히타지	① abhiṣyandayati (滋潤)	② pariṣyandayati (遍滋潤)	③ parispharati (遍充滿)	④ pariprīṇayati (遍適悅)
섭결택분	① mngon par rlan par byed (滋潤)	② yongs su rlan par byed (遍滋潤)	③ yongs su khyab par byed (遍流)	④ yongs su tshim par byed (遍悅)
현양성교론	① 滋潤	② 遍滋潤	④ 遍適悅	③ 遍流布

〈표 6〉 북전 계통의 정형구 (B) 대조

법온족론 등	無有少分	① 而不充滿	-
결정의경	nāsti ..... bhavati	① asphuṭaṃ	②aspharaṇīyaṃ
파승사	na ... kiṃcid ... bhavati	① asphuṭaṃ	②aspharaṇīyaṃ
SHT no.990	-	① asphuṭam	②spharaṇīyam

『결정의경』이 성립하기 이전 곧 기원전 1세기 이전일 것이다. 그리고 Prī/prīṇāti를 채택한 이유는 신체를 가득 채우는 주체인 prīti와 동일한 어근을 사용하여 양자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붓다고사는 정려지의 pīti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서, 정형구 (A)에 나타나는 Sphar 동사를 채택한 phāraṇā pīti를 다섯 번째로 열거한다. 그리고 그는 phāraṇā pīti를 온 몸을 가득 채우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Vism p.114,23-25: pharaṇāpītiyā pana uppannāya sakalasarīraṃ ..... anuparipphuṭaṃ hoti. 여기서도 '채우다'라는 의미와 '만족하게 하다'는 의미의 연결을 볼 수 있다. Deleanu, Florin, *op. cit*. p.514, n.126. 참조.

성문지	na ... kiṃcid ... bhavati (無)	① asphuṭaṃ (不充滿/ma khyab pa)	② spharaṇīyam (無有間隙/ khyab par bya ba)
사마히타지	na ... kiṃcid ... bhavati (無有少分)	① aparisphuṭaṃ (而不充滿?/ma khyab pa)	② spharaṇīyam (khyab par bya ba)
섭결택분	med do (無有少分)	① ma khyab pa dang (不充?)	② khyab par bya ba (不滿?)
현양성교론	無有少分	所不遍滿	-

북전 계통 문헌에 나타난 정형구 (A)의 형태상 가장 큰 특징은 남전계통이나 한역『중아함경』와는 달리 “pariprīṇayati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점이다. 이 단어가 나타나는 순서는 일정하지 않다. 많은 경우 남전 계통의 세 번째 단어 “paripūreti”를 대체하여 그 자리에 나타나지만,「사미히타지」나「섭결택분」처럼 정형구의 제일 마지막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모든 문헌이 사역형 “pariprīṇayati” 형태를 취하는데 비해,「파승사」만 유일하게 직설법 “pariprīṇāti” 형태를 취하고 있다.『결정의경』은 “paripūrayati” “pariprīṇayati”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 두 문헌은 “pariprīṇayati”가 “paripūrayati”를 대체하는 중간 과정의 흔적을 보여준다.

한편, 설일체유부 계통의 논서인『법온족론』등은 다른 북전 계통 문헌의 정형구와 형태상으로 차이를 보인다. 네 동사를 나열하는 다른 문헌에 비해 세 셋트의 여섯 동사를 나열하고 있는 것이다.

정형구를 인용하는 맥락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초기 유가행파 문헌은 7종 작의를 통해 4정려의 근본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미지정과 근본정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5지정 맥락의 정형구를 그 비유와 함께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법온족론』과『결정의경』은 4삼매수의 맥락에서 정형구를 인용하고 있다. 게다가『법온족론』은 5지정 맥락의 정형구와는 전혀 다른 비유를 설하고 있으며, 반대로『결정의경』은 5지정 맥락의 비유를 설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의 4삼매수 안에 배치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정형구의 형태와 인용의 맥락에서 볼 때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인용된 정형구는 그 어떤 계통의 정형구와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고 부분적인 친연관계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이 정형구로서는 초기 유가행파의 학파

적 계통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설일체유부 문헌보다는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문헌과 더 친연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정형구 (B)에서도 드러난다. 우선 한역 문헌에서는 정형구 (B)-②의 존재여부를 확정하기 힘들다. 산스크리트로 남아있는 문헌의 경우 SHT만 "spharaṇīyam" 형태가 나타나고『결정의경』과「파승사」는 그것의 부정형인 "aspharaṇīyam"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이 단어는 구문의 의미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정형구 (B)-②의 형태 차이가 단순한 서사전통의 차이인지 학파 전통의 차이인지 확정하기 어렵다.

VII.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성문지」에 인용된 5지정 정형구를 시작으로, 이 정형구가 나타나는 모든 문헌을 망라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5지정 정형구는 신념처를 통해 4정려에 드는 수행과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이 정형구는 신념처 특히 입출식념을 통해 4정려에 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이렇게 형성된 정형구는 한편으로는 5지정 정형구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법락주 정형구로 각각 별도의 경로를 통해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전 문헌의 5지정 정형구의 특징은 정형구 (A)에 "paripūreti" 대신 "pariprīṇayati"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신체를 가득 채우는 "만족(prīti)"과 자연스러운 연결을 고려해서 채택한 단어로 보인다. 우리는 그 이행의 흔적을『결정의경』과『근본설일체유부율』「파승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넷째, 초기 유가행파 문헌에 보이는 정형구와 다른 북전 문헌에 나타나는 정

형구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초기 유가행파 문헌의 학파 소속성을 확인하기 어렵게 한다. 상대적으로는 설일체유부 문헌보다는 경량부와 근본설일체유부 특히 후자와 친연성이 확인된다.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자료

- AVinN *Arthaviniścayasūtranibandhana*, ed., in Samtani 2005[1971].
- AVinS *Arthaviniścayasūtra*, ed., in Samtani 2005[1971].
- SamBh[D] *Samāhitā Bhūmiḥ* of the YBh, ed. in Delhey 2009 I: pp.125-228.
- SBV *The Gilgit Manuscript of the Saṅghabhedavastu*, part 1, 2, ed. R. Gnoli, Roma: Instituto Italiano per II Medio ed Estremo Oriente, 1977-78.
- SHT *Sanskrithandschrifien aus den Turfan-Fünden*, ed. Ernst Waldschmidt et al., 11 vols., Wiesbaden (/Stuttgart): Franz Steiner, 1965ff.
- ŚrBh[D] *The Chapter on Mundane Path in the Śrāvakabhūmi*, ed. in Deleanu 2006 I: pp.317-354.
- ŚrBh[Sh] *Śrāvakabhūmi of Ācārya Asaṅga*, ed. Karunesha Shukla, J.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Patna, 1973.

- AN *Aṅguttaranikāya*, ed., R. Morris , E. Hardy, London: PTS 1885-1900.
- DN *Dīghanikāya*, ed. T.W. Rhys Davids, J.E. Carpenter, W. Stede, PTS, London, 1890-1911.
- MN *Majjhimanikāya*, ed. Trenchner & Chalmers & Mrs. Rhys Davids, PTS, 1888-1925.
- Vism *Visuddhimagga*, ed. H.C. Warren, revised D. Kosambi, Harvard, 1950.

- P *Peking Tibetan Tripiṭaka*, Peking Edition, Suzuki, Daisetz T. ed., Tokyo and Kyoto: Tibetan Tripiṭaka Research Institute, 1955-1958.
- ViSg[T] *Yogācārabhūmau Viniścayasaṃgrahaṇī*, P. No.5539. D. No.4038.

- 『대비바사론』(『大正藏』27)
- 『법온족론』(『大正藏』26)

• 『유가사지론』(『大正藏』30)
• 『장아함십보법경』(『大正藏』1)
• 『중아함경』(『大正藏』1)
• 『집이문족론』(『大正藏』26)
• 『현양성교론』(『大正藏』31)

2. 2차 자료

〈단행본〉

• Florin Deleanu, *The Chapter on Mundane Path (Laukikamārga) in the Śrāvakabhūmi*, Vol I, II,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2006.
• Martin Delehey, *Samāhitā Bhūmiḥ: Das Kapitel über die meditative Versenkung im Grundteil der Yogācārabhūmi,* Teil 1, 2. Wien: ATBSt, 2009.
• N.H. Samtani, *The Arthaviniścayasūtra and its Commentary (Nibandhana)*, Patn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2005[1971].
• Tse-fu Kuan, *Mindfulness in Early Buddhism: New approaches through psychology and textual analysis of Pāli, Chinese and Sanskrit sources*, Abingdon, New York: Routledge, 2008.

〈논문류〉

• 김성철, 「정려의 구성요소를 둘러싼 여러 학파의 해석 (1)」『인도철학』 55, 서울: 인도철학회, 2019, pp.47-82.
•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안성두 역,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불교학리뷰』 제1호,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06, pp.125-159.
• 정진일, 「한역 중아함경 상당 산스크리트 사본 잔엽들」, 『인도철학』 30, 서울: 인도철학회, 2010, pp.5-18.

• 毛利俊英, 「『聲聞地』の止觀」, 『龍谷大學院研究紀要 人文科學』 10, 京都: 龍谷大學大學院, 1989, pp.37-54.

On the *Pañcāṅgika-samādhi* Fomular and *Kāyasmṛtyupasthāna* in the Early Yogācāra Literature

Kim, Seongcheol
Professor
Geumgang University

This paper is a preliminary work in a series of studies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kāyasmṛtyupasthāna* in the spiritual practices of the early Yogācara.

For developing my view, I have investigated almost all the texts in which the *pañcāṅgikasamādhi*-formula appeared, starting from the passages cited in ŚrBh, and examined the textu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formula.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ly, It is observed that *pañcāṅgikasamādhi*-formula is closely related to the spiritual practices through which a practitioner enters fourfold dhyāna by *kāyasmṛtyupasthāna*. Perhaps this formula is supposed to have formed in the course of entering the fourfold dhyāna by kāyasmṛtyupasthāna, especially ānāpanasmṛti.

Secondly, this formula appears to have been adopted as a formula of *pañcāṅgikasamādhi* on the one hand and a formula of *dṛṣṭadharmasukhavihāra* on the other.

Thirthly, the characteristic of *pañcāṅgikasamādhi*-formula of the northern Sanskrit literature is that the word "*pariprīṇayati*" appears in formula (A) instead of "*paripūreti*" in Pāli literature. This seems to be the adopted word considering the natural connection of formula and prīti. We can find traces of that transition in AVinS and SBV.

Finally, the formula shown in the early Yogācāra literature does not exactly

match the formula found in other Sanskrit literature. This makes it difficult to identify the school affiliation of the early Yogācāra literature. It is relatively more familiar with Sautrāntika and Mūlasarvāstivāda, especially the latter, than the Sarvāstivāda literature.

Keywords
kāyasmṛtyupasthāna, fourfold *dhyāna*, *pañcāṅgikasamādhi*, Sautrāntika, Mūlasarvāstivāda, Yogācāra

2019년 05월 08일 투고
2019년 06월 07일 심사완료
2019년 06월 21일 게재확정